

투데이 칼럼

부안군 역사상 농업직 서기관 승진...

농업직이 지방기술서기관 직급승진을 거쳐 기획감사실장에 파격 영전을 했다. 부안군 역사상 농업직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한 것은 최초 사례다. 기획감사실장은 군수를 보좌하고 부안군 주요정책을 기획·입안하며, 예산과 홍보, 인구정책, 감사·법무, 규제개혁 등에 나서는 경륜과 식견이 있어야 하는 중핵 중의 중핵이다. 14개 실과와 1개 읍면을 총괄해 도시, 주택, 건설, 환경, 교통 등 재민업무에 통달했을 때 오를 직위가 기획감사실장이다. 승진한 기획감사실장은 1979년 농업직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디고 1995년 6급으로 승진했으며 2007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친 환경



이 옥 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농업과장, 하서면장으로 근무하다 민선 6기 출범 후 2014년 8월 부안군의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돼 2018년 7월까지 4년여를 근무하다 권 군수 취임 직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항간에 "전 전 김호수 군수사람으로 분류돼 전

군수 시절, 4년 내내 의사과 전문위원에 처박혔다"기도 말한다. 농업직인 1씨가 지방기술서기관 직급승진을 거쳐 기획감사실장에 파격 영진, 부안군 역사상 농업 직 서기관이 기획감사실장이 된 최초 사례다. 1씨는 민선 7기 직전 군수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취임 직후, 부

안군 수십 개 실과와 13개 읍면 등 700여 공직자를 총 지휘할 기획감사실장이 됐으니 변신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다. 민선 7기 권익현호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기대가 크다. 역대 군수마다 감옥이나 법정행이 적지 않은데 행정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사적으로 권 군수를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군민들은 격정의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로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혁신을 이루겠다"며 "인사정책자는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어 인사비리를 사전 차단하겠다. 인사로 부정한 소리가 절대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권 군수다.

기자수첩

남원 춘향의 현 주소

남원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춘향의 도시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장에서도 남원 브랜드를 춘향제인으로 선정 활용하고 있어서 남원하면 먼저 춘향이 떠오른다. 물론 남원하면 추어식품(추어탕 등)이 대명사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원 춘향제(지난 월 88회 축제 개최됨)가 있듯이 춘향은 남원의 대표 브랜드이다. 특히, 춘향제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문화예술축제로 3년 연속 지정되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듯이 그동안 남원시청과 시민들 그리고 기관사 회단체에서는 춘향의 이미지 제고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남원의 춘향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 단체가 내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후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는 회장으로 선임된 서 모씨에 대해 단체의 선거관리위에서 선거운동과정은 문제삼으며 무효로 발표하자 법으로 가져갔으나 기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체의 회장이 공적으로 수개월 이상을 흩날리고 있다. 이에 몇몇 회원들이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회장을 추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모 회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계속 확대로 진행되어 잡지도 의문이 든다.



김 기 도
지방부 남원주재

제기하고 나선 이모씨 등의 사유를 보면 먼저 임시총회를 주재한 사람의 자격문제와 회의 상원 정족수 문제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 추진측에서 정족수 충족을 위해 전화로 위임받았거나 새 회장 추대 찬성이 전화로 위임되었다며, 이는 정상적인 추대방법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은 총370여명이며 이중 약233명이 전화로 앞의 내용(위임)이 이루어졌고, 임시총회 참석인원은 약88명이며 이중 약25명이 추대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 단체의 핵심 임원이었던 사람에게 의하면, 이모씨 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단체의 봉합차 부분 과정과 단체의 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진정서를 지난 28일 남원경찰에 접수해 임시접수 확인증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 왔다. 오는 28일 새 회장의 추대 취임식을 갖고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갈 이 단체가 모조록 시민들로부터 더욱 환영 받고 더욱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토론토 충격



22일(현지시간) 캐나다 경찰이 토론토 총기난사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폭염철 건강에 주의가 요망된다

폭염철 건강에 주의가 요망된다. 연일 체온을 웃도는 열기로 사람들이 기진맥진한 상태다. 폭염철에는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시보건소가 주의 경계령을 발령했는데 송준상 보건소장도 건강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요즘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살인진드기의 확산이 심각하다. 환자가 아홉 명 발생해 전주에서 1명, 완주에서 3명, 남원과 인실에서 각각 1명씩 모두 여섯명이나 사망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다들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긴팔 옷을 입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요즘같은 폭염철에는 신경을 써야 할 게 하나 둘이 아니다. 살인진드기와 관련해서 독거노인 등 노약자들의 형편이 어찌지 않고 있어야겠다. 여름철 불볕 더위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은 늘 있었던 것이지만 올해는 더위가 아주 극심해 1994년도의 그것을 생각나게 할 정도이다. 한때는 체온을 웃도는 폭염에 시달리고 밤에는 열대야에 잠 못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으니 보통 이상의 주의가 요망되는 것이다. 요즘같은 폭염철에는 음식물의 변

질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여름철이면 독거 노인들의 식중독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대상도 많다. 그중에서도 비브리오 패혈증은 우선순위의 경계 대상이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한 번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완전 퇴치가 어렵다. 그런데 일반인 중에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가 더러 있다. 화합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여름철에도 조개와 날생선을 먹고 있는데 보건 당국은 계곡이 활발해야겠다. 그리고 발이나 다리에 상처가 난 사람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금해야겠다. 건강은 개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하지만 보건 당국도 계속 계곡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위생에 대한 광범위한 계몽활동과 예방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계곡을 받았으면 그에 순응하는 미덕을 보여야겠다. 폭염철 건강은 보건 당국의 계몽에 순응하는 이들에게 있을 터이다. 개개인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폭염철 건강에 주의하라는 당부는 열 번을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전북 발전은 예산 7조원 시대가 말한다

전북 발전은 예산 중야이 말한다. 승화된 예산 확보가 없다면 지역 발전 계획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더라도 그것은 그렸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할 말이 있다. 새정부집행을 앞둔 해인 프로젝트 사업들이 이제 이상 없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까닭이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망됐는데 그뿐이었던 편안하다. 전북도는 발전 청사진 공표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재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 사업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않아서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와 전 발연을 탓하지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 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추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짜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고 싶은 오늘날이다. 전북도는 회가를 보여줘야 한다.

도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승화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소폭 증액은 의미가 없다. 겨우 물기 인상을 남길 정도의 증액으로는 지역 발전을 이끌 어낼 수 없다. 군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중 지역 공장 폐쇄를 생각하면 안다지 창출을 위해서라도 대폭 증액이 있어야 한다. 정부 측 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락된 것은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지원 약속이 아니라 실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달에 행정부지사와 정부부지사 와 도지사가 워터에 행보를 보여줬지만 전북도는 기발중 노력해왔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잠 자고 있는 각각의 사투를 간도시 추진시켜야 한다. 지역의 낙후를 면치하려려면 각각의 사업들을 본 계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너 많은 일지라가 창출됨과 동시에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란다. 전북도는 7조원 예산 시대를 열기 위해 다시 또 뛰어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